

사진기자의 단상

몸은 불편해도 '나라 사랑'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던 향긋한 봄바람은 습기 잔뜩 머금은 녹녹한 바람이 되었고, 따스하던 햇살은 따갑게 내리쬐면서 굵은 땀방울을 만듭니다.
하늘 가득 물러드는 검은 비구름에 피할 틈없이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기도 하는 여름입니다.
하지만 맑게 갠 하늘을 환하게 비추던 촉촉한 햇살이 사라지고, 뜨거운 여름처럼 촉촉한 햇살이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기도 하는 여름입니다.
하지만 맑게 갠 하늘을 환하게 비추던 촉촉한 햇살이 사라지고, 뜨거운 여름처럼 촉촉한 햇살이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기도 하는 여름입니다.

I love MY student



정선기 <광주경신여고>

교사 생활 4년째 되던 해인 1991년 처음으로 고3 학급 담임을 맡게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때에도 고3은 아침 7시에 등교하고 저녁 10시 30분에 하교하였다.
전상국의 소설 '우상의 눈물' 속 담임교사처럼 나도 내 학급을 일사분란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아침 7시에 학생들이 전원 출석해서 책을 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만족했다.

다. 빨리 깊게 흡수하기도 하고 느리게 넓게 확장해 가기도 한다.
한순간에 다 자랐다가 서서히 야무워가는 뒤뜰의 대나무와 조금씩 더디게 자라는 높은 산의 주목이 있으며,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나오는 목련과 잎이 먼저 무성해지고 꽃이 나중에 피는 자귀나무가 있는 것처럼.

교육은 학생의 다양함과 차이를 발견해서 길러주는 것이 아닐까?
교사는 그러한 통찰의 안목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발견의 섬세한 촉각을 세워 사랑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편협한 성공주의에 집착해서 다름과 차이를 무시하며 학생들을 무당하게 지배했다.
늦잠 자지 말고 뒤쳐지지 말라고 울러댔다.
자신감을 빼앗고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가

차이를 인정하는 교실

그런데 윤희라는 학생이 지각이 잦았다.
나에게 윤희는 눈엣가시였다.
나는 윤희를 달라고 검주며 타이르곤 다그쳤다.
"너 지각 계속하면 네 인생 실패해!"라고.
그럴수록 윤희는 지각을 계속했다.
윤희가 아예 등교를 하지 않은 날, 나는 윤희 집을 찾아갔다.
버스를 타고 외곽까지 가서 내려 20분 넘게 언덕길을 올라 가니 윤희 집이 나왔다.
"세상에 이렇게 먼 곳에서 다녔는데도 나무라기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선생님, 전요 아침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라며 윤희는 울었다.
윤희는 아침잠이 많으면서도 지각하지 않으려고 애쓴 학생이었다.
인간의 신체리듬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학생들의 집중도도 개인별로 시간마다 차이가 있다.
교부도 새벽에 잘 되는 학생이 있고, 오후에 잘 되는 학생이 있으며, 한밤중에 잘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의 시기나 양상도 개인마다 다르고 차이가 있

능성을 박탈해 버린 게 그 얼마일까?
나는 부당한 권력의 맹인 폭군!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학생들이 모두 잘 따라오면 내 말에 공감하고 감명 받아서 그러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교사로서의 내 능력을 스스로 과신하며 좁고 깊은 만족의 늪에 빠져 있었다.
나는 제도에서 과잉되는 편리한 여러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재단하고 판단해 왔다.
나는 획일의 잣대로 재고 평가해 버린 것이다.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정원수를 보기 좋게 정진해 버리듯이.
애들이, 너희들은 서로 다르잖아.
애들이, 너희들은 서로 차이가 있잖아.
몸과 생각이 서로 다르고, 꿈과 좋아하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어.
감성과 이성의 우뇌와 좌뇌의 작용이 서로 달라.
관점에 차이가 있고 접근 방식이 같지 않아.
성장 환경이 다르고 나이갈 길이 같지 않아.
난 나만의 모놀로그로 소통했어.
애들이, 미안해.
눈 뜬게!
너희들과 다이얼로그로 만나야 해.

리빙 센스
에쁜 다리 만드는 운동
▲근육 풀어주기
트림이 다리 전체를 주물러 근육을 풀어준다.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스트레칭도 좋다.
▲비뚤어진 근육 바로잡기
양 무릎을 세우고 허리는 쭉 편다.
양 무릎을 가지런히 한 뒤 좌우로 바닥에 닿도록 30회 정도 움직인다.
▲종이리 근육 운동
한쪽 무릎은 세우고 다른 쪽 무릎을 구부려 앉는다.
양 손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중심을 앞으로 옮기고 상체를 숙인다.
이때 엉덩이가 올라가거나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 다리를 바꾸어 가면 10~20회 실시한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15일(음 6월 13일 丙辰)
36년생 밤손님이 보이니 문단속을 잘하라.
48년생 내 것 주고 욕 먹을 수도 있다.
60년생 달빛으로는 과일이 익지 않으니 적절한 방법을 취하라.
72년생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84년생 잘못 된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04, 16
37년생 뜻하지 않은 여인을 만날 수도.
49년생 귀한사람이 찾으니 준비하고 있이라.
61년생 남의 일에 놀아나라.
73년생 밖은 조용하나 집안이 시끄러우니 집안을 살펴봐라.
85년생 변화는 새로운 일을 만드니 시기를 잘라라.
행운의 숫자: 22, 43
38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50년생 오늘은 마음껏 웃는 날이다.
62년생 가끔은 싸우는 것이 부부사이지만 지나치면 큰 일 난다.
74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이 있어야 하나 오늘은 과감하게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02, 31
39년생 과식은 손재를 부르니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
51년생 실패는 과욕에서 출발하니 착실하게 진행하면 성공한다.
63년생 많이 얻으려거든 많이 베풀어라.
75년생 빨간은 약속되었고 시작만 남았다.
행운의 숫자: 19, 42
40년생 세지의 허가 잘못하여 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52년생 직장과 가정에 즐거운 일이 생길 수다.
64년생 친구가 더 다니니 생방이 손실이다.
76년생 전쟁보다는 협상으로 처리하면 좋은 결과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10, 33
41년생 상황 따라 길흉이 바뀌니 다시 심사숙고해라.
53년생 불만족스런 하루지만 혼자서 자위하라.
65년생 시비 구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하리라.
77년생 힘이 든 하루였으니 휴식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15, 41
42년생 남의 말을 듣지 마라.
손재가 떠난다.
54년생 모든 일이 지연되나 좋은 쪽으로 향한다.
66년생 新舊文書를 잘 살펴보고 괴로움이 발생하라.
78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
옳은 판단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13, 43
43년생 친인척의 조언으로 도움을 얻게 되니 잘 들어 보라.
55년생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라.
대충은 없다.
67년생 대운으로 향하나 그곳이 좌구나.
79년생 새로운 일은 활발한 일터가 되니 재물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23, 39
44년생 호사다마 지나가는 일도 다시 한번 살펴봐라.
56년생 손실은 투자가 되니 너무 걱정을 하지마라.
68년생 잘못된 문서로 눈물이 난다.
80년생 엉뚱하게 큰일을 벌이면 먹을 밥도 못 찾는다.
행운의 숫자: 20, 27
45년생 뜻대로 진행되나 이득은 미지수다.
57년생 믿었던 협조자가 도움을 주지만 기약은 없다.
69년생 잘 될 때를 조심하라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난다.
81년생 부인의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24, 32
46년생 오늘은 가정에서 인내해야 하리라.
58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70년생 불면사가 갑자기 나타나니 행동을 신중해야 하리라.
82년생 배우자의 불륜사가 예상되니 잘 보살피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18, 30
47년생 대화가 많으면 오해는 없으리라.
59년생 겉으로 보기는 참체되나 실속은 있다.
71년생 가정에 대고 예상되니 하루 중 일 살펴봐라.
83년생 가까운 사람간의 큰 싸움이 생길 수니 신뢰를 쌓아라.
행운의 숫자: 12, 25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제17회 光日盃
장주: 전남 직제바둑대인
흑 ▲로 파내 초반부터 큰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장호 5단이 믿는 것은 좌상귀에 팻감이 여리게 나온다는 것인데 이창준 5단이 이것을 알고 흑 39로 붙여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흑 41로 아래에서 이단졌힌 것은 타개의 맥점으로 배워 둘 만한 수법이다.
이때 백으로서 고민이다.
상식적이라면 '참고도'의 백 1로 있는 것이 무난한데 흑이 2,4로 모양을

손해 본 타협안
4회전 1국 3보 (36~52)
白 장장호 5단 (포스코)
黑 이창준 5단 ((주)승림)
잡았을 때 5로 끊는 패를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백은 좌상귀에 팻감이 두개 정도있는데 반해 이에는 백도 '가'로 끊는 팻감공장이 있는 것이다.
정장호 5단은 고민 끝에 백 42로 두어서 살려주는 것으로 타협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흑 51까지는 필연의 수순인데 이 결과는 백 세력 안에서 깔끔하게 살아간 흑이 실리에서 상당한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
정 5단은 52로 끊어 대가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과연 팻감이 어떻게 될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삼성화재배 통합예선 함영우 진출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통합예선에 함영우 아마 7단, 황진형·정찬호·유병용 아마 6단이 출전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13일 마무리된 이 대회 아마예선에서 4강에 진출, 오는 24일부터 프로기사들과 겨루는 통합예선에 나가게 될 것이다.
함영우는 대전광역시장배, 학초배, 한상수배에서 우승했고 황진형은 건화배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다.
유병용은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이며, 정찬호는 미추홀배 우승컵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국내 아마 1위인 송홍석과 CMC배 아시아아마바둑10강전 우승자인 김남훈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더마플라스트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203>
Do you think I look all right?
관찰해 보이나?
A: Do you think I look all right?
B: For a job interview?
A: Yeah.
B: Not unless you don't want the job. You'd better change.
A: 관찰해 보이나?
B: 취업 면접시험에 갈 거니?
A: 그렇지.
B: 아니야, 자네가 정말 그 일자리를 얻고 싶다면 아니라고. 변화를 줘야겠어.
* job interview = 취업 면접
* You'd better ~ = ~하라고.
* 우리가 그 경기에서 승리할 것 같니?
= Do you think we can win the race?

오하오우 니혼고 <1203>
無事故(むじこ)無違反(むいはん)ですよ。
무사고 무위반입니다.
A: 運轉免許(うんでんめんきょ)が取(と)りにくくなったと聞きましたけど。
B: そうですね。車が多すぎるし、事故も多いからでしょう。
A: ええ、ところで、松本さんは免許はいつ取られたんですか。
B: 10年前です。無事故(むじこ)無違反(むいはん)ですよ。いつも安全運轉を心掛(こころが)けていますからね。
A: 운전면허가 따기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만。
B: 그렇습니다。차가 너무 많기도 하고,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건가요。
A: 예에. 그런데, 마즈모토 씨는 면허 언제 뒀습니까。
B: 10년 전입니다。무사고 무위반입니다。
언제나 안전운전을 주의하고 있으니까요。
取(と)りにくくなった: 따기 어려워졌다
取られる: 딸 수 있다
心掛(こころが)ける: 주의하다, 유의하다

니하오 쫑구워 <180>
你的爱好是什么?
년 취미가 뭐야?
A: 你的爱好是什么?
Ni de ai hao shi shenme?
니 너의(어)호오 소 쉐니?
B: 我的爱好是弹钢琴。
Wo de ai hao shi tan gang qin.
와 너의(어)호오 소 쉐 강진.
A: 弹得好吗?
tan de hao ma?
탄 오 호오 마?
B: 还行。
Hai xing.
하이 쉐.
A: 년 취미가 뭐야?
E: 내 취미는 피아노 연주야.
A: 잘 치니?
B: 그치 그래.
爱好 [ai hao:] 취미
弹 [tan:] 연주하다
钢琴 [gang qin:] 피아노

한자 이야기 <820>
口禍之門(구화지문)
입 구, 재앙 화, 어조사 지, 문문
구화지문(口禍之門)은 입이란 재앙의 문이라는 뜻으로, 말조심할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 말은 당(唐)나라가 망하고 송(宋)나라가 건국되는 53년 동안 후당(後唐), 후량(後梁), 후주(後周), 후진(後晉), 후한(後漢) 등 오대(五代)의 난세(亂世)에 벼슬을 하면서 '다섯 왕조에 걸쳐 여덟 개의 상을 가진 열 명의 임금(五朝八姓十一君)'을 섬겼다는 평을 받는 풍도(馮道)의 '설시(舌詩)'에서 유래한다.
그는 73세를 살면서 자신의 체체관을 요약하기를,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구시화지문, 口是禍之門),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설시참신도, 舌是斬身刀).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폐구심장설, 閉口深藏舌),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안신처우, 安身處處安)"라고 하였다.
'구화지문'은 여기서 나온 것이고, 입이 재앙이 나오는 근원이므로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간다"(화중구출 병중구입, 禍從口出, 病從口入)도 말을 할 때 각별히 신중해야 할 것을 일깨우는 말이다.